

# 장수 리스크에 관한 성경적 대응

백석대학교 김 형철교수(경상학부)

## I. 이사야의 계시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  
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리라”(사  
65:20)는 이사야의 예언은 장수에 관한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구속받은 자들  
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장수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다. 잠언에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장수를 누린다<sup>1)</sup>고 언급되어 있다.

100세 수명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다. 2050년에는 남성의 평균수명이 85.14세, 여성은 90.89  
세가 될 것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전망하였는데, 이는 통계청이 2006년에 예상했던 평균  
수명인 남성 82.87세, 여성 89.92세 보다 더 연장된 수명이다(오영희, 2011).

UN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Ag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2%에 이르러 고령화사회로  
들어섰다. 향후 2018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이보다 2배(14.3%)로 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고, 2025년에는 5명 중 1명이 노인(20.8%)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1864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프랑스의 경우, 고령사회로 가는 데까지  
115년이 걸렸고, 2019년 초고령사회에 이르기까지는 155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  
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1970년 고령화사회에서 2006년 초고령사회가 되기까지  
36년이 걸렸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기간이 18년, 고  
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 불과 7년 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전 속도는 통계청 예측보다 훨씬 빨리, 더 길게 연장되어 2050년에는  
노인인구의 비중이 42.3%에 이를 것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해 새롭게 추산되었는데  
이는 통계청이 전망한 38.2%보다 더 높은 수치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노인  
비중이 가장 높은 노인 나라가 될 것이다.

또한 유·소년층인구(0~14세)에 대한 노인인구의 비율을 뜻하는 노령화지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에 7.2%, 2000년에 34.3%, 2010년에는 67.7%로 증가하였다. 향후 2030년에는 노  
령화지수가 213.8%로 급격히 증가하여 노인인구가 유·소년층인구보다 2배 이상 많게 될 것  
으로 예상된다.<sup>2)</sup>

이러한 장수사회는 노년부양비<sup>3)</sup>를 증가시킬 것이다. 통계청 자료<sup>4)</sup>에 의하면 2010년 노년부

1) “내 아들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여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잠언 3:1,2)

2) UN(2009), 통계청(2012)자료

3)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양비는 15.0이며, 이는 생산가능인구 6.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현재의 저 출산이 지속될 경우 202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203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연유로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말이 언론에서 기획 기사로 회자되고 있다(조선일보, 2011).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장수는 의료 기술의 발달로 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편적인 섭리이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신약의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신앙과 학문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장수사회에 대한 대책을 분석한 학술적인 선행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신앙이란 객관화하기 어려운 주관적인 체험이 상존하지만 신앙인은 믿음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는 시각이 필요로 된다.

따라서 본고는 그리스도인에게 예견되는 장수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임을 밝히고, 장수사회가 맞게 될 리스크들을 2장에서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3장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장수사회를 살아갈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언급함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 II. 장수 리스크

장수 리스크(longevity risk)란 계량적으로는 연금급여액 책정 시 적용되는 예정생존율이 실제 생존율보다 낮게 추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이다. 다시 말하면 개인이 예상한 은퇴기간[예상수명 기대 값-은퇴연령(60세)]에 대한 예상치 못한 은퇴기간[사망연령-예상수명 기대 값]의 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장수 리스크지수는 0.87로 미국(0.37), 일본(0.35), 영국(0.33)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값은 사람들의 실제 은퇴기간이 자신이 예상한 것보다 평균 87% 가량 길어질 것을 의미한다. 이는 동일 방식으로 산출한 미국, 일본, 영국과 비교할 때 약 2.5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장수리스크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이유는 급속한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사람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은퇴기간의 증가폭이 컸기 때문이다. 고령층일수록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장수리스크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수명이 늘어난 국가이지만 반대로 직장을 은퇴하는 시기는 빨라져, 오래 사는 것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김미선, 2009).

은퇴 이후의 삶을 결정하는 생활영역을 여가, 일, 가족 및 친구, 주거, 마음의 안정, 재무, 건강 등 7개 항목으로 나누어 은퇴지수를 개발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점수는 58.3점에 그쳤다. 부문별로는 건강과 가족관계, 주거 등은 약 64점 수준인 반면 일과 재무적인 측면은 각각 51점에 그쳐 다른 분야보다 준비가 덜 된 것으로 나타났다.<sup>4)</sup>

다가오는 장수사회에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인지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많지만 특히 조기 은퇴로 인한 생산인구의 감소, 노후소득의 부족으로 인한 세대 간 갈등, 가계자산의 레버리지증가에 따른 포트폴리오 변화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1 조기 은퇴

베이버부머 세대라 지칭되는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의 연령대 728만 명이 2010년부터

4)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2.

5) 매일경제, 2012. 3. 29.

은퇴를 시작하게 됨에 따라 사회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정년퇴직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고 정년도 서구에 비해 매우 짧다. 정부에서는 연령차별 금지법을 통해 기업들이 가능하면 정년을 60세로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기업들이 취업 규칙에 상정한 정년연령은 평균 56세에 불과하며, 근로자들의 실제 퇴직 연령은 평균 54.1세로 더 짧게 나타난다. 남성들의 경우 군복무와 대학교육으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 되어야 비로소 일자리를 잡게 되는데, 주된 일자리에서 안정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짧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근로자가 정년퇴직 후 은퇴할 때까지 자영업을 하거나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서 근로 후반기를 보내는 것이 현실이다(우재룡, 2012).

평균 은퇴기간과 연금수혜와의 차이를 유발하는 현금흐름 불일치(cash flow mismatching) 기간이 존재한다. 장수사회에서 60세 이전에 조기 퇴직으로 퇴직 나이가 55세, 연금지급기간이 65세부터이면 10년간의 연금수혜기간의 차이로 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앞서 고령화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이 최근 정년을 법적으로 연장한 것은 이런 연유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일본식 인구 고령화를 막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도 고령화 부담으로 공공부채(debt)와 재정적자(deficit)가 증가하고 디플레이션(deflation)이 발생하며, 이것이 다시 생산인구 감소 등의 악순환을 불러오는 '3D 경제'의 늪에 빠질 우려가 있다. 생산인구 감소로 고령인구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 저축 감소, 연금과 의료비 같은 고령화 관련 지출로 인한 정부의 공공지출 증가 등 실로 다양하고 폭넓은 문제들이 고령화와 맞물려 있다. 따라서 조기 은퇴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로 된다.

## 2.2 노후소득의 부족

수명이 길어질 때 은퇴자들이 은퇴 후 가장 많이 염려하는 부분은 돈 부족(48.4%)이었는데 이는 건강문제(19.7%)보다 2.5배나 높은 수치였다.<sup>6)</sup> 특히 생활여건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은퇴 후에 더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55.5%로 2년 전 조사(37.5%)보다 급증하였다. 또한 은퇴 후 염려하는 부분으로는 자녀의 교육과 결혼(12.7%), 사회적 역할 감소(6.9%), 남은 시간 관리(6.6%) 등의 순이었다.

장수가 실제로는 재앙을 초래하는 리스크로 존재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경제사회인문연구회가 시민과 학생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100세 장수시대에 대해 축복이라는 인식(33.2%)보다는 재앙에 가깝다는 생각(39.6%)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양민, 2012). 이는 건강하지 못한 삶, 부채의 부담, 생활비 부족, 자녀들과의 불화 등이 요인이 되며, 많은 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은퇴자들의 노후 수입원을 살펴보면 근로·사업소득이 35.4%, 공적·사적연금이 6.7%, 자녀·친척도움이 37.3%, 기타 20.6%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의 경우는 근로·사업소득이 19.8%, 공적·사적연금이 64.8%, 자녀·친척도움이 0.5%, 기타 14.9%로 나타났으며, 일본의 경우는 근로·사업소득이 17.7%, 공적·사적연금이 74.9%, 자녀·친척도움이 2.5%, 기타 4.9%로 조사되었다.

한편 서울지역 직장인들이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수입원을 살펴보면 저축과 이자소득이 34.2%로 가장 높았으며, 개인연금 22.7%, 국민연금 17.7%, 부동산 임대료 11.8%, 퇴직금

6) 여론조사기관 트렌트모니터에서 2010년 45~53세 근로소득자 6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6.8% 순이었다. 그런데 전체 연령층에서 노후를 위해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4.7%나 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대한상공회의소, 2010).

65세 이상 고령자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공적연금수급률은 2005년에는 16.1%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총 160만 6천명으로 65세 이상 총 인구의 30.0%를 차지하는 등 공적연금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긴 하지만 70%는 공적연금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노후자금 중 국민연금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로 선진국 평균(20~25%)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은퇴 전 소득대비 은퇴 후 각종 연금소득비율을 나타내는 소득대체율은 우리나라가 56%로 미국의 78.8%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다. 은퇴자들의 대부분은 국민연금에 의지하고 있는 반면 국민연금의 노후대비 충분성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월 소득 200만 원 정도인 사람이 은퇴 후에는 생활비로 130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국민연금수령액은 45만원 수준이고 각종 연금으로도 112만 원밖에 충당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 하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부분은 2060년쯤이면 국민연금재원이 고갈될 것으로 보여 노후소득 보장 장치로서의 기능도 불완전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 20개국 가운데 노인 빈곤층 비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으로 재정지출을 더욱 늘거나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때 세대 간의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장수사회에서 연금은 노후생활비의 기능을 넘어 가족관계 유지 기능까지 담당하면서 미래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선진국 중에서도 성공적인 호주의 연금제도를 배울 필요가 있다. 조세를 기반으로 조성되는 사회 부조 방식의 연금인 노령연금에 더하여, 기업에게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는 퇴직연금인 보충형 퇴직연금, 그리고 세제 혜택 등을 통한 자발적 저축인 개인연금 등의 3중 구조로 가져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연강흠, 2012). 그러므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중 연금체계의 구축을 위한 세제혜택, 재정건전성의 감독 등 연금지원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 2.3 레버리지의 증가

우리나라의 가계는 자산의 76.8%(2011년 기준)를 실물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비중은 73.6%에 달한다. 이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 가계의 실물자산 비중이 60%대 이하인 것에 비견된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 미국과 달리 가계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실물자산 비중이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소득 구간별로도 부동산 선호 현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고령층이 되어 실물자산 비중이 줄어드는 미국이나 일본의 가계와는 달리 우리나라 가계는 오히려 고령층 가구에서 실물자산 비중이 가장 높다. 이는 자녀교육 및 출가 부담 등으로 이미 50대 후반부터 금융자산을 많이 사용해버린 영향이 크다. 근로소득도 변변치 않은 고령층의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구조는 유동성이 취약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실업 및 의료비 증가 등에 대한 노출도가 큰 노년층 가구의 주택 매물이 늘어날 경우 주택 가격의 하락을 부추길 수도 있다(이창선, 2012). 최근 대출을 받아 집장만을 했지만 집값이 떨어지면서 대출 이자 상환 때문에 궁핍하게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하우스 푸어(house poor)라는 신조어가 등장하였다. 이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 하나가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고령화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행 통계자료에 따르면 개인금융부채는 2007년 744조 원 수준에서 2008년 802.3조 원, 2009년 854.8조 원, 2010년 937.3조 원으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말 대비 16.8%가 증가하였는데 현재 속도로 증가할 경우 멀지 않아 가계부채는 1,000조 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가계부채의 규모는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13.0%씩 늘어 경제성장률 7.3%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1999~2002년의 경기회복기에는 연평균 24.3%씩 증가하였고, 2005~2006년 주택시장 호황 때에는 연평균 10.7%씩 늘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규모뿐만 아니라 증가 속도와 구조에 더 큰 문제가 있다. 2000년에 0.5배였던 우리나라의 GDP대비 가계부채는 2010년 0.8배로 10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OECD국가 평균인 0.69배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이다. 소득이 낮고 나이가 많을수록 부동산의 비율이 높고 빚을 갚을 능력이 떨어진다. 가구주가 60대 이상인 가구의 부동산 보유 비율은 85.6%인데 비해 처분가능소득에 대한 총부채비율은 3.47배로 30대의 부채비율 1.69배, 40대 1.97배, 50대 2.39배에 비해 크게 웃돌았다. 이는 은퇴 이후 수입이 줄기 때문에 빚을 내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계자산의 부동산 편중과 가계부채의 증가로 레버리지가 증가하였다. 특히 부동산 담보 일시상환대출로 창업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영업 실패에서 오는 부담이 큰 몫을 하고 있다. 고도 성장기에는 레버리지로 이익확대 효과가 있으나 성장이 정체될 때 이러한 레버리지는 자산손실, 금융비용 등의 기회비용을 발생케 한다.

우리보다 먼저 장수사회를 맞고 있는 유럽과 일본의 과도한 부채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맞물려 장기간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이 필요로 된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초기에는 은퇴 이후를 대비한 저축이 증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노인인구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축적된 자산을 소비하는 비중이 늘어날 것이므로 저축률이 감소할 것이다. 노동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저축의 감소는 투자기회의 감소를 가져와 투자율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고령화가 주식가격의 장기적인 움직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sup>7)</sup>이라는 주장과 오히려 크게 영향을 미칠 것<sup>8)</sup>이라는 상반된 주장이 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견해도 있다(조지 매그너스키, 2010). 이러한 상반된 의견을 참고로 하여 최소한의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관리하는 통합적인 사고가 필요로 된다.

### Ⅲ. 성경적 대응

장수는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사회현상이다. 앞에서 언급된 장수 리스크들은 조기 은퇴로 인한 일자리 문제와 노후 빈곤을 대비한 재산관리 등으로 정리된다. 이러한 장수사회의 리스크는 개인단위의 비체계적 위험과 시장단위의 체계적위험, 그리고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생기는 비시장위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헷지할 수 있는 방안을 성경의 천국 비유를 통하여 모색하고자 한다. 성경은 천국 비유를 통해 깊은 영적인 실체를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세상 즉 천국이 주는 상태가 구체적으로 임하길 바라고

7) 장수사회가 주식가격의 장기적 움직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하버드 대학교의 제임스 포터바(James Poterba)이다.

8) 존 기아너코플로스(John Geanakoplos)와 마이클 맥길(Michael Magil)은 주식가격이 인구변화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있다. 성경에는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이 많은데, 여기서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마태 20:1-16), 달란트 비유(마태 25:14-30),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누가 16:20-25) 등을 통하여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보고자 한다.

첫째,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한 구원에 대한 시간의 역전 현상을 인식하고 은혜로 일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 필요시 된다.

둘째, 달란트 비유에서의 시사점으로는 위험을 무조건 회피하고자 하는 데에서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당하는 신실한 종의 자세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리스크를 어느 정도 부담하고 성장프리미엄의 창출을 위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portfolio rebalancing)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셋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보듯이 세상과 천국의 가치의 역전을 이해하고 말씀을 믿는 영성생활을 위하여 자산과 부채관리(asset and liability management)로 생존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요망된다.

천국은 시간에 대하여, 리스크에 대한 태도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서 가치의 역전이 이루어지는 나라이다. 이 나라는 과거의 업적이 중시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세상과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따라서 신앙인의 삶은 장수 리스크라는 제약조건 가운데서 믿음생활을 할 수 있는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성경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3.1 시간의 역전

#### 3.1.1 포도원 품꾼의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시사하고 있는 천국은 나중에 되는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되는 자가 나중에 되는 시간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다. "천국은 마치 품꾼들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라고 시작되는 데 여기서 천국은 시·공간의 이동보다는 어떤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태 20: 1~7절에서는 고용을, 8~16절은 임금지불을 다루고 있다. 주인은 품꾼들을 고용하려고 노동시장에 나가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또 주인은 3시, 6시, 9시, 그리고 11시에도 노동시장에 나가서 놀고 있는 품꾼들을 또 고용하였다. 이 주인은 마치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 고용을 하는 사회적 기업가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이 일반 기업과 다른 점을 설명하기 위해 '전통적인 기업은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지만, 사회적 기업은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는 말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유 속의 포도원 주인은 고용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는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놀고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 이것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하여 실업자가 엄청나게 많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제 현실을 잘 묘사하고 있다고 한다(박정윤·권영철, 2010).

이 비유에서 일자리를 주고자 하는 주인의 마음은 천국의 한 단면을 보여 주고 있다. 일은 월급을 받기 위해 하는 일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직업은 우리 주변의 공동체나 세계에 대해 더 깊은 차원에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일은 은혜의 세계에 속한다. 자선사업과 봉사에 힘쓰는 기업도 있고, 사회에 대한 기여와 헌신을 핵심가치로

강조하는 기업도 있다(짐 윌리스, 2011).

성경에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살후3:10).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잠언6:6)고 교훈하고 있다.

### 3.1.2 정년 연장과 일자리 창출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주인이 품꾼에게 일감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마음이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과 노동의 선한 영향력은 매우 중요하다. 일자리 창출은 노후소득의 부족과 생산인구의 감소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생산에 참가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감소한다. 일을 통한 소득은 소비를 줄이고 최소 생계비를 벌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따라서 가급적 정년 연장의 문화를 통해 은퇴시기를 늦추어 일하는 것이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앞서 보았던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고용된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벌써 하루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 오후, 한 시간 밖에 남지 않은 시간에 고용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불가능했다. 그런데도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설사 오늘 고용되지 않더라도 내일 선약이라도 얻을까하는 마음에서 시장을 서성거리고 있었을 것이다.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일할 기회를 갖게 되었고, 그리고 한 시간 밖에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일한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었다(최갑종, 2010). 제 11시라는 맨 나중에 온 품꾼에게 먼저 품삯을 주면서 제일 먼저 온 품꾼보다 더 존중한 주인을 하나님의 상징으로 볼 수가 있다. 이는 천국에 들어갈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하나님만이 만물의 궁극적인 주인이므로 선하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공적 주장은 용납되지 않는다. 주어진 일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포상이 포함되어 있다. 품꾼은 봉사를 통해 아버지 같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게 된다. 하나님을 위한 일 자체가 행복한 봉사이다(나학진, 2010).

그리고 일은 결과적으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자영업 창업자 중에 80%가 실패를 하며,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중 가계부채를 악화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은퇴자들에게 공익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기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보건 의료·사회복지·교육·재활용·환경 분야, 주차단속 인턴제도 실시 등 공익형 일자리를 다양하게 창출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따라서 정부의 노인복지정책도 일자리를 통한 소득의 확충으로 모아져야 한다.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년 연장·재고용·근로시간 단축형 등은 사기업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것으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을 얻기가 어렵다. 통계청 조사에 나타난 은퇴자들의 일자리 선택기준이 임금 수준에서 일의 양과 시간의 비중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은 이를 시사한다.

자녀와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일하는 고령자의 68.2%가 만족을 느끼는데 이는 비취업 고령자(61.1%)보다 만족도가 7.1%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고령자는 52.3%가 '노후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비취업 고령자의 경우(34.0%)보다 18.3%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2). 이는 노인이 일과 연금을 통해 자립하는 국가에서 세대 간의 연대가 강하다는 해외 사례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Edward Whitehouse, 2011).

## 3.2 리스크의 역전

### 3.2.1 달란트 비유

마태 25장 14~30절의 달란트 비유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시작된다. 재산을 위임하는 주인과 이에 반응하는 종에서 천국의 한 면을 엿보게 한다. 달란트 비유에서 시사하고 있는 바는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마25:29)는 말씀을 통해 감내할 수 있는 위험 수준에 맞게 성장 프리미엄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비유는 하나님나라에서는 리스크를 감당하는 일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위험을 부담하고 신실한 자세로 일을 하는 사람이 성과를 내는 것이 천국의 한 모습이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윤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주인은 이윤을 창출한 두 종은 칭찬하였으나, 이윤을 창출하지 못한 종은 저주하고 있다. 심지어 땅에 숨겨두었던 종의 한 달란트마저도 빼앗아, 다섯 달란트로 열 달란트를 만든 종에게 주라고 지시한다.

이윤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움직이는 신호등이라 할 수 있다. 이윤은 생산요소의 고용수준과 사용처간 배분에도 영향을 미치며,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능케 한다. 사회가 확장을 원하고 있는 산업에서는 이윤이 발생하고, 다시 이윤은 생산설비 확장의 재원이 된다.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는 산업은 축소되어야 한다는 신호가 된다. 따라서 달란트 비유에 담겨있는 가치체계, 즉 이윤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은 현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지지하는 뿌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창출한 이윤은 한 달란트를 안전한 땅속에 묻어둔 것과는 달리 위험을 무릅쓰고 사업에 착수하여 기업경영을 수행한 데 따른 대가이다(성태경·성기정, 2010). 이 비유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일의 태도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사회양극화 현상은 현금을 사용하여 부자와 가난한 자를 평균케 하는 교회의 역할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성경적인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원리는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근거하고 있다.<sup>9)</sup>

### 3.2.2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달란트 비유의 본문이 재능 등을 의미하고 물질 개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지만, 종의 신실한 자세에서 예수님은 가치의 성장을 바람직한 것으로 말씀하신다. 나이가 들면 위험회피가 합리적이다. 그러나 감내할 수 있는 위험수준에 대한 수익의 추구는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나이가 든다고 굳이 위험회피보다는 적절한 수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금융자산의 비중이 23.2%(2011년 기준)에 불과한데, 이는 금융자산 비중이 65%인 미국, 일본(58.7%), 영국(45.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금융자산 중 현금과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6%(2010년 2분기 기준)인데 비해, 미국의 경우 금융자산에서 현금과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4.7%에 불과하고 채권,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한 돈이 52%로 고위험·고수익의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9)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고린도후서 8:14)



선진화된 사회보장제도와 노후를 대비한 가계의 자산운용 성향을 반영하여 보험·연금 비중이 금융자산의 54.4%에 달한다(금융투자협회, 2010).

우리나라는 대부분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투자되고 있으므로 길어지는 은퇴기간에 대비하여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요구된다.

첫째,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관심을 제고한다.

인플레이션 연계채권이란 채권의 원금과 이자가 물가지수에 따라 조정되어 물가상승이 일어나는 만큼 수익률을 높여주는 채권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때 실질금리가 떨어지면서 채권수익률이 떨어지는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한 구조로 만든 채권이다. 투자자에게 인플레이션이 가져오는 가장 큰 부담은 물가 인상에 따른 실질구매력 혹은 보유자산의 실질가치 하락인데 이를 활용하면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둘째, 위험분산투자 차원에서 해외채권의 비중을 제고한다.

최근 주식시장 상승에 대한 부담 및 인플레이션 우려로 투자자들의 해외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브릭스(BRICs)국가는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높은 금리수준은 그 자체로 환변동에 대한 일종의 버퍼역할을 해줄 수 있으며 또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외국계 투자자금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어 통화가 강세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셋째, 비용이 저렴한 적립식 인덱스펀드의 비중을 제고한다.

인덱스펀드투자는 자문수수료 및 거래비용이 적극적 투자전략의 30~40% 수준으로 저렴하다. 인덱스펀드투자는 매입단가평균(Cost Averaging)의 이점이 있는 적립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적립식투자는 변동성 있는 주식시장에서 매월 일정금액이 투자되므로 투자 시기나 금액이 분산된다. 그리고 상장지수펀드도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KODEX200은 코스피에 상장된 200개 기업의 주가를 단순 추종하는 상장지수인덱스펀드인데, 1년 수수료가 0.35%로 기타 펀드에 비해 수수료가 낮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펀드 중에서 1년 수수료가 가장 높은 것은 2.84%인데 만약 거치식으로 20년간 장기보유 할 경우 수수료만으로도 원금의 56.8%가 된다.

넷째, 자본시장을 정화하는 사회책임투자펀드에 기독교인들은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펀드는 개인연금을 통한 세제혜택과 윤리적 투자로 청지기 정신을 실현 시킬 수 있다. 이러한 포트폴리오의 변화는 개인연금을 통해서도 구체화 할 수 있다.

다섯째, 실제적인 고령화 대응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자본시장법에 근거하여 퇴직연금에서의 보험상품 선택 편입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 투자위험관리를 위한 금융투자상품, 사망위험관리를 위한 보험상품, 장수위험관리를 위한 연금상품 등이 결합된 은퇴소득배분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국민경제 측면에서는 장수위험을 헷지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해당 인구의 생존율이 증가하거나 사망률이 감소하면 이자 및 원금이 증가하는 구조를 지닌 장수채권은 연금지급기관에게 장수위험을 헷지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또한 장수스왑은 장수위험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원금이 고정되는 금융부담이나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장한 파생상품으로, 연금지급기관은 스왑 상대방에게 사전에 정해진 연금지급기대액을 고정적으로 지불하는 대신 스왑 상대방으로부터 실제 지급되는 연금지급액을 수취하는 방식으로 현금흐름을 상호 교환하는 금융수단이다. 그리고 퇴직 후에 자본시장을 활용하여 일정한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인출용펀드나 생애주기별 필요자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펀드의 개발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세대 간의 경제적 갈등을 사전에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 3.3 가치의 역전

#### 3.3.1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누가복음 16장 19절을 보면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스럽게 즐기더라"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배옷은 속옷이고 자색 옷은 겉옷이다. 반면 나사로는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려 했다고 20~21절에 언급되어 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천국에서는 오히려 가치의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부자는 세상에서 즐기고 나사로는 오히려 궁핍하였지만, 천국에서는 서로의 입장이 달라진다. 일과 성장을 통한 필요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시 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풍부한 소유는 영적인 책임과 맞물려 있다. 부는 선한 일이다. 그러나 영원한 관점에서 소유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sup>10)</sup>. 부자나 가난한 자 누구든지 영원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이다. 이 두 사람은 죽은 후에 심판을 받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나사로는 천당으로 갔고 부자는 지옥으로 갔다. 여기서 천당과 지옥은 지리적인 장소의 뜻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태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상태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나학진, 2011). 부자가 심판받은 이유는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한계상황에 처해 있는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냉대에 있다. 부자라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데, 문 앞에 있는 거지를 외면한 것이 잘못이다. 부자는 의무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부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안전을 물질로 대체하여, 인간의 관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물질로 돌리게 하는 영적 올무가 될 수도 있다.

나사로의 가난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단지 그의 물질적·신체적 상태를 묘사하는데 한정하고 있음을 주목하여야 한다(강인한, 1999). 부자로서의 우리는 이웃에 대한 의무와 가난한 자로서의 우리는 가치의 역전을 받아들이고, 성경 말씀대로<sup>11)</sup> 희망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생존전략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모든 소유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적 가치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재산을 기꺼이 헌신하는 증거로서 재산을 포기하는 삶이 또한 이러한 모델이 될 수 있다.

#### 3.3.2 자산부채 종합관리

세상의 구조적인 문제로 또는 영적인 사역을 위하여 가난을 택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관점에서 최소한의 생활로 내세를 준비하는 삶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재물의 낭비, 집착, 축적 보다는 오히려 영적가치를 위해 재산을 포기하는 것, 이는 개인윤리보다는 사회윤리적인 차원에서 공동체를 위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원과 재능의 청지기 사명을 갖고 있다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수적인 것 이상의 생산물을 소비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관점에서, 부유한 자는 나눔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삶에 적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자산 범위 내에서 부채를 관리하고 또한 경제적으로 정함

10)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빌립보서 4:11~13)

11)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누가복음 16:31)

이 없는 자산<sup>12)</sup>가치를 평가할 때 현금흐름을 획득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원칙으로 할 때 유동성 위기를 극복 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은 보증<sup>13)</sup>이나 과도한 부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할 부채가 이자를 지불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목표가 없는 경우에는 집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집을 섬기는 모양이 되어 구조 조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유동성이 부족하여 생존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동산을 유동화 하여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연금제도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에 대한 공적 보증을 대행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생활자금을 매달 연금처럼 지급받는 역모기지제도이다. 또한 퇴직일시금의 연금화가 필요시 된다. 이는 퇴직시점과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기간 동안의 전환기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보충적 소득원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퇴직연금이 가교연금(Bridge Pension)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주로 금융기관의 대출금이므로 금리에 대한 민감도인 듀레이션이 짧은 반면, 가계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에 투자되고 있으므로 부채에 비해 자산듀레이션이 상대적으로 길다. 따라서 자산은 이자율 변동에 보다 민감하다. 그러므로 이자율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자산가치가 부채의 가치에 비해 더욱 크게 하락함으로써 순자산가치가 감소하게 된다. 듀레이션 갭이 차이가 나는 경우 가계채무의 순자산이 시장금리의 변동에 따라 크게 변하게 된다. 따라서 듀레이션 미스매치(duration mismatch)를 줄일수록 순자산 또는 순부채의 변동 폭을 줄일 수 있게 된다.

## IV. 결론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준다. 지금은 부분적이지만 미래에는 온전한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천국의 실체를 당시의 언어로 표현하셨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맛보는 천국의 경험으로 장수사회의 주된 리스크인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서 부터 본 논문은 시작되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이러한 문제는 융합적이고 학제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

성경은 나이 들을 재앙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이사야서와 잠언 등에서는 축복으로 본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한계효용 면에서 은혜가 채증되고,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게 될 때이며, 영성으로 물질을 관리하는 성육신의 원리가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현상인 장수사회를 천국모형을 통하여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천국은 포도원 품꾼, 달란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보듯이 시간, 리스크, 가치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나라이다. 시간의 역전은 사랑에 근거한 은혜로, 리스크의 역전은 주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가치의 역전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소망으로 가능하다.

현실의 삶에서 발생하는 장수 리스크는 조기 은퇴로 인한 노후소득의 부족과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가계부채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과 공익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요망된다. 그리고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의 결합을 통한 포트폴리오의 재조정이 필요시 되며, 영원한 시각에서 자산부채관리를 하는 통합적인 방

12)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디모데전서 6:17)

13) "내 아들이야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잠언6:1)

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최소한의 임금과 퇴직연금 수혜를 위해 일하는 기간의 연장이 필요로 되며, 개인연금을 통한 리스크를 향유하고 성장프리미엄에 참여토록 하며, 국민연금으로 최소한의 현금흐름이 창출하도록 하는 사회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 참 고 문 헌

- 김미선 외 2인, 장수 리스크의 산정과 국제비교,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스페셜 레포트 2, (2009).
- 금융투자협회, 주요국 가계금융자산 비교, 2010.
- 금융투자협회, 호주 퇴직연금의 성공신화, 2010.3.
- 금융투자협회, 100세 시대 도래와 자본시장의 역할, 2011.9.
- 강인한, “부자들을 위한 복음”, 백석대학교, 진리논단, 4, (1999), 147-148.
- 권세훈, 장정모, 고령화시대 장수채권 도입방안, 자본시장연구원, KCMI issue paper 11(3), 2011.
- 나학진, “하나님 은혜와 포도원의 품꾼”, 영락교회 만남지, 9, (2010), 20-23.
- 나학진, “부자와 나사로”, 영락교회 만남지, 2, (2011), 22-24.
- 대한민국정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새로마지 플랜 2015, 2011.
- 박정운 · 권영철, “전통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연계전략에 대한 탐색적 연구”, 로고스경영연구, 8(1), (2010. 4), 1-22.
- 연강흠, “고령화 사회해결사”, 사적연금, 월간 하나금융 257호(2012. 1), 1-7.
- 오영희,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국민의식 연구, 한국사회보건연구원, 2011.
- 이창선, “가계자산 포트폴리오”, LG Business Insight, (2012. 2.), 1-13.
- 정경희 외 3인, 선진국의 고령화 대응정책 동향, 한국사회보건연구원, 2011.
- 성태경 · 성기정,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성서 속의 달란트 비유”, 로고스경영연구, 8(1), (2010. 4), 23-38.
- 송양민, “인구고령화 시대의 노후준비와 금융의 역할”, 하나금융포커스, 2(2), (2012), 2-3.
- 우재룡, “행복한 은퇴설계”, 중앙일보, 2012. 4. 17.
- 조선일보, “100세 쇼크 극복인가 재앙인가”, 2011. 1. 3.
- 조지 매그너스, 고령화 시대의 경제학, 부키, 2010.
- 짐 월리스, 가치란 무엇인가, Ivp, 2011.
- 최갑중, “포도원 품꾼들의 이야기”, 백석춘추, 백석정신아카데미, (2010), 140-149.
- 통계청, 인구 가구구조변화와 인구특성변화, 2012.
- Baker, D., DeLong, J.B., and P.R. Krugman, “Asset Returns and Economic Growth”,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2005).
- Benartzi, S., and Thaler, R., “Heuristics and Biases in Retirement Savings Behavior”,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007).
- Douglas Schindewolf, “Asset Allocation: Adjusting Our Recommendations”, Citi Group  
Consulting Group, (2002).
- Edward Whitehouse, “The Road to an Older Future”, Global Symposium on the Capital  
Market for the Centenarian Generation, (2011), 36-45.